

은행권, 팔 걷어붙였는데...효과는 '글썸'

[갈길면 포용적금융]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은행권도 서민금융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이 각종 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아진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원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민간 금융사의 팔 비틀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민간 금융사 모두 단숨에 포용적 금융의 외형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서민금융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 자들에 대한 보수적인 영업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탓이다.

대표적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은행들이 지난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채희망플러스' 대출 등의 취급을 늘렸음에도 중금리 대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에서 연 8%대 이상 중금리가 적용된 일반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 13.3%로 1년 전 수준(13.8%)보다 소폭 축소됐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조4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7조9000억원까지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 취급도 미미한 상황이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아닌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형태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태가 없는 무체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

정부 기조 맞춰 서민금융 확대 팔 걷고 나서 중금리·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아직 미흡

기 기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515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172억5000만원)보다 세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정책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해당 기간 공급액이 약 400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민간 은행들의 참여는 부진한 셈이다. 아직까지 시중은행 몇곳은 담보 자산의 위치와 정보 등을 파악할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도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을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용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도 불멘소리가 적지 않다.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고는 해도 앞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련한 자금이 부실한 기업들의 수명을 잠시 연장해주는 수단인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지원에 힘써달라는 정부의 요청대로 은행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나서고 있는데 실효성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민금융 지원의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재원 마련이나 지원 방식에 있어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실행 과정에서 구체성이 결여되다보니 돈이 엄한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휘발유가격 34개월만에 최저... 1당 1348원

11주간 341.9원 빠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348원으로 34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유류세 인하조치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7원 하락한 리터당 1348원을 기록했다. 2016년 3월 둘째주의 1340.4원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유류세 15% 인하 이후로는 11주간 모두 341.9원이 빠져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6.9원 내린 리터당 1246.2원을 기록했다. 11주 연속

하락한 것인데 이 기간 248.1원이 내렸다. 2017년 8월 셋째주의 1245.4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SK에너지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6.6원 내린 1366.1원, 경유도 6.1원 하락한 1263원을 각각 나타냈다.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9.4원 내린 1318원, 경유는 9.9원 하락한 1216.7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1466.3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117.3원 높았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평균가격은 1300원 대를 보였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휘발유 가격은 1302.8원이었다.



중소제품 공공구매 촉진 위한 설명회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 무대리 정재경)은 광주전남지방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17일 광주시청에서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 58개 지자체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의 업무에 카드수수료를 한번에 꺾는 방향으로 접근하니 회사 가치가 반 토막 난다"면서 "신실성 정책을 추진할 때 과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지(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시장 구매총액은 연간 123.4조 원 규모이며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2.2조 원으로 총 구매금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광주전남 54개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은 17.55조 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총액은 13.98조 원(79.7%)을 나타내는 등 우리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전국 평균(74.8%)보다 4.9%나 높았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구매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은, 구매담당자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며 "특히 구매금액 규모가 큰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들과 2018년부터 공공구매제도 이행기관이 된 지방의료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서울흥 기자

카드·보험사 "싫은기색도 못내"...포용 아닌 강요?

"서민지원 수단으로만 봐선 안돼, 경쟁력 고려해야"

"자영업자 위한 일이라는 데 대놓고 싫은 내색도 내놓고 못하고 적자 앞에서 죽을 맛이죠"(A 카드업계 관계자).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내달께 적용된다. 이를 앞두고 카드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금융당국의 '포용적 금융'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카드수수료를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카드수수료를 개편하는 등 '상생의 금융환경' 조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포용적 금융'의 핵심사항"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애로사항을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달 역대급 규모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카드업계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불만을 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상생경영', '자영업자 살리기' 등 포용적 금융 일환으로 밀어붙이려는 소리 한 번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누굴 돕고 상생경영을 하더라도 사기업이 적자까지 내면서 할 수는 없지 않나"면서 "구조조정까지 우려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당국 눈치가 보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어렵다. 회사측에서 내서는 대신 노조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당국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눈치를 보는 것은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사 역시 지난해 손해를 상승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의 눈치가 보여 마음껏 울리지 못하고 있어 울상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폭설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늘어 손해율이 급증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3%대 올리기로 결정했다.

인상에 앞서 금융당국에서 보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가격개입' 시도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지난 16일 김용덕 손해보험

협회장은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보자 잘 따져보고 하라는 뜻이었다"면서 "당국과 협의했다기 보다 여러 요인을 두고 업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의욕을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최 위원장이 간부들과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폭염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온라인 보험 확산에 따른 사담비 절감 등 인하요인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을 고려하면 보험료를 최소 8~9%대 인상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포용적 금융 기조와 국민정서상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같은 업계 분위기에 전문가 역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을 서민지원 수단으로만 보고 산업으로서 적절한 이익을 내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로서의 고민에는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주들이 부여한 자본에 적절한 수익을 내줘야 하는 것이 기업인데 카드수수료를 한번에 꺾는 방향으로 접근하니 회사 가치가 반 토막 난다"면서 "신실성 정책을 추진할 때 과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지(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오늘 Lotto 제 842회차 당첨결과 (2019년 1월 19일 추첨)

14 26 32 36 39 42 + 38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0	2,036,475,02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42	80,772,81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39	1,663,786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3,190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35,911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약정연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